

# 맥주 한잔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이야기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벡은 "맥주 첫 모금의 맛을 당할 만한 것은 세상에 없다"고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작가인 레이 브래드버리는 "맥주는 지적이다. 그 술을 수많은 바보가 마신다는 게 유감이다"라는 말로 상찬했다. 맥주 애호가들에게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얘기다. 그만큼 맥주에는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특유의 무언가가 있다.

맥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만들어져 이집트로 전파됐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자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기도 했다. 이후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교통로를 따라 북유럽까지 전파됐다.

무더운 여름철, 퇴근길에 마시는 맥주 한 잔은 그 자체로 '피로회복제'다. 동료들과 월드컵 경기를 보며 마시는 맥주의 맛은 또 어떤가. 일상을 떠난 여행지에서 가볍게 마시는 맥주의 맛도 여느 음료에 비할 바 아니다.

맥주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친숙한 술이었다.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많고 사람들도 또한 각기 다른 맛과 향을 느낀다. 다양한 문화와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 맥주와 관련한 한 두 가지 추억을 가지고 있다.

맥주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책이 나왔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맥주의 발달 과정, 역사적 사건, 맛있는 맥주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맥주를 한 잔 마시며 나누면 좋은 내용들이다. 공방을 운영하며 팟캐스트 '주류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강희 씨가 펴낸 '맛있는 맥주 인문학'이 바로 그 책이다. 한마디로 맥주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이자 맥주 한 잔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이야기인 셈이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맛있는 맥주 인문학

이강희 지음

저자는 맥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다루지만 정작 맛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맛을 언급하면 선입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평가 대신 자신의 혀와, 코, 입으로 '나에게 맞는' 맥주를 선택하라는 의도다.

오늘날 맥주는 거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그 가운데 독일,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 북유럽과 동유럽이 강대국이다. 와인이 생산되는 온난한 지역과 달리 포도 재배가 어려운 지역에서 맥주가 발달했다. 바로 보리를 원료로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맥주는 크게 에일과 라거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에일은 상온에서 윗발효를 하고 라거는 저온에서 아랫발효를 하는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에일이, 독일에서는 라거가 발달했다. 특히 독일은 '맥주의 나라'답게 라거를 비롯한 다양한 맥주가 분포돼 있다.

아랫발효라고 일컫는 저온 발효법은 수도사들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첫 제조, 이집트 거쳐 유럽으로

영국·아일랜드 에일, 독일에서는 라거 발달

맥주 발달 과정·역사적 사건·기여한 사람 등 조명



독일의 옥토버페스트(10월 축제)는 왕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지금은 '맥주 축제'로 유명하다. <북카라반 제공>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맥주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굴에 보관했는데 상온 발효와 달리 정량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들이 저장고를 두는 것은 그런 연유다.

라거, 에일과는 다른 '자연발효' 맥주에 대한 부분도 흥미롭다. 벨기에 브뤼셀 일대에서 주도되는 랍빅은 인공적인 효모를 쓰지 않고 공기 중에 떠도는 균으로 발효를 한 맥주다. 고대 메소포타미

아에서 만들어진 맥주의 원형에 가깝다. 식초에 가까운 신맛을 완화하기 위해 설탕이나 과일을 넣기도 한다.

비상업성과 전문성, 고품질의 특성을 지닌 트라피스트 맥주도 있다. 시메이·아헬 등 모두 11종이 있는데 대부분 벨기에에서 만들어진다. 이와 달리 제국의 시대 영국과 인도 무역에서 탄생한 IPA(인디아 페일 에일)는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독일, 벨기에 못지않게 체코도 맥주로 유명하다. 14세기 바츨라프 4세는 보헤미아 왕으로 재직 시 교황에게 일반인들도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보헤미아 지역에서 맥주산업이 발달하게 됐고 특히 연수(염료가 적은 물)를 이용해 맑은 맥주가 생산됐다.

그렇다면 한국 맥주의 맛은 어떤가. 저자는 "맥주 시장에 경쟁은 없고 두 회사가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맥주 가격은 비슷해졌다"며 "가격을 맞추기 위해 재료의 수준도 획일화되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한다.

이밖에 책에는 맥주를 만든 사람들, 맥주에 관한 다양한 상식 등 맥주를 좋아하는 이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식도 소개돼 있다. <북카라반·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 이문구 지음 '관촌수필'

한국 현대소설 시리즈 '문지클래식'이 여섯 권의 작품집으로 첫발을 뗐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간행한 도서 가운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작품'들로 구성된 문지클래식은 '고전'의 사전적 정의에 충실한 동시에 현 세대가 읽어도 깊이와 모던함을 느낄 수 있도록 초점을 뒀다.

이번에 시리즈 1차로 나온 책들은 다음과 같다. '관촌수필' (이문구), '마당 깊은 집' (김원일), '낯선 시간 속으로' (이인성), '아버지의 땅' (임철우), '미궁에 대한 추측' (이승우),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최운) 등이다.

한국 현대소설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첫 출간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에게 재미와 감명을 주고 있다. 위의 작품들은 한국 전쟁 이후 사회의 모순을 들여다보며 인간의 근원적 욕망과 모습들을 작가 특유의 감각으로 그려낸 문제작들이다.

문지클래식의 포문을 연 책은 이문구의 '관촌수필'로 고향에서의 일을 풍부한 토속어를 활용해 써낸 작품이다. 분단문학을 대표하는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으켰다. 이인성의 '낯선 시간 속으로'와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은 각각 상처 입은 청년의 의식을 중점적인 문체로 그린 수작, 소시민의 여러 삶의 형태를 감동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이승우의 '미궁에 대한 추측'은 신화와 역사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소설이다. 마지막 책으로 최운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아픔을 딛고 희망을 증언하는 언어의 역사를 다룬다. <문학과지성사·1만5000원(관촌수필), 그 외 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줄리언 반스 지음, 정영목 옮김 '연애의 기억'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2011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영국 문학의 대가 줄리언 반스의 장편소설이 나왔다.

신작 '연애의 기억'에는 사랑의 시작과 끝을 되짚는 깊고 서늘한 통찰이 담겨 있다. 소설은 막 어른이 되려 하는 19세 청년과 오래전부터 어른이어야 했던 48세 중년 여인, 이들이 나누는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이탤리의 책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29개국 판권 계약이 이루어질 만큼 인기를 끌었다. 번역은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현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정영목 교수가 했다.

서사의 시작은 일흔 즈음에 접어든 남자가 50여 년 전 예기치 않게 자신의 첫사랑과 맞닥뜨린 일을 돌이키며 시작한다. "제 정신이 아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진 남자와 "다 닳아버린 세대"를 지나고 있는 여자, "선택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감정이 두 사람을 몰아붙이던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첫 사랑을 삶을 영원히 정해버린다"라는 그의 독백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의 기억이 된다. 세 개의 장으로 나뉜 소설에는 독특하게도 각 장마다 다른 시점이 등장한다. 첫 번째 장에서 주인공 풀은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두 번째 장에서는 행복이 사그라드는 자리에 파고드는 고통을 담담하게 읊조린다. 마지막 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3인칭으로 몰려서 진실을 들여다본다.



<다산책방·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김필영 지음 '시간여행,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익숙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시간'. 호기심 강한 인간은 오래 전부터 '시간여행이 가능한가'를 물어왔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며 시간여행의 짜릿한 긴박감을 느꼈다면 '인터스텔라'를 통해서는 시간여행이 인간 상상력의 소산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최근 천체물리학 분야의 연구 성과는 시간여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시간 개념은 특수상대성이론을 비롯한 물리학 이론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인류가 생성된 이래, 형이상학, 인식론, 언어철학, 물리철학, 논리학 등 제반 학문에서 시간은 늘 첨예한 쟁점을 이루는 핵심 논제였다. '시간여행, 과학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는 시간을 둘러싸고 이루어져온 인류 지성사의 맥락을 정리·소개한다. 또 관련된 대표 주장들의 논지와 허점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해설해간다.

한국의국어대학교에서 철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필영은 '타이타닉'은 1984년으로 갈 수 있는가?', '타임 머신의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가?', '엘비스 프레슬리는 과거의 자신을 만날 수 있는가?', '존 코너는 오로라 공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등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난해한 시간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대 그리스 시대의 오래된 쟁점으로부터 시간여행에 관한 최근의 쟁점에 이르기까지 3차원주의와 4차원주의 사이에 벌어진 흥미로운 논쟁을 소개한다. 그리고 근대 시간이론과 3차원주의를 결합해 새로운 3차원주의를 제시한다.



<들녘·1만9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